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본 아동인식

The Perception of Children in Folk Paintings
of the Late Chosun Period

정 진*

Jeong, Jin

백 혜 리**

Baeck, Haerhee

ABSTRACT

This study of 54 folk paintings of the late chosun period analyzed the perception of children of that period. Three types of children's activities were identified: children playing, children working hard, and children studying hard. Only boys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 along with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girls were relegated to the background, along the fence.

Conclusions were that people recognized play as a natural part of childhood. children's lives were defined by social status: children of the yangban (upper) class had to study hard for their family's honor while children of the lower classes had to labor for their family's livelihood. children were recognized as members of a family and a community. Boys were considered important because they were heirs to the family fortune: girls were to be supportive of men and family.

Key Words : 아동관(the conception of children), 아동기 개념(the concep of childhood), 전통 아동 생활(the Korean culture)

* 우송공업대학 부교수

** 이화여대 강사

I. 서론

풍속화(風俗畫)란 인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을 의미하는데, ‘풍속’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사회에 행하여 온, 의·식·주 그밖에 모든 생활에 관한 습관” 또는 “세상의 시체(時體), 풍기(風氣)를 뜻하는 것(최순우, 1981)이다. 우리나라에서 생활 풍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다. 원시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울주군 반구대의 암각화의 경우나,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기에 새겨진 그림, 고구려 고분의 벽화 등에서 보이는 생활상은 물론이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많은 풍속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전의 풍속화는 기록적, 기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회화성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매우 적다.

예술성과 회화성을 지닌 본격적인 풍속화는 17세기말 이후 발생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서민 예술로 사실적이며 생활위주로 표현된 그림들로서 진솔하고 꾸밈없는 감정 표현과 서민의 삶을 담고 있다. 한국적 풍속화의 회화적 특성으로는 서민의 실제 생활과 그들의 생각, 느낌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현실성 혹은 생활과의 친밀성,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소박성, 해학성(김영숙, 1985; 안취준, 1988; 이양우, 1994; 조은정, 1996; 진준현, 1999) 등을 들 수 있다.

예술성과 회화성을 지닌 풍속화의 발생에는 당시 화단에 유행하던 사실주의 경향이나 자아각성, 실용성 추구 등을 강조하는 실학의 발생, 상업의 발달, 시민계층의 성장 등,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신동훈, 1996; 유봉학, 1998; 이양우, 1994; 이태호, 1996)).

즉, 상업이 확대됨에 따라 평민계층의 경제적 능력이 확대되고 평민에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경제적, 정신적 여유는 서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민중의식의 성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보다 나은 민중의 삶에 대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풍속화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초기의 풍속화는 기록화에 풍속화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이태호, 1996)고 본다. 즉, 1720년 제작된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와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등에서 연회나 행렬과는 관계없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려진 경우나, 한시각(韓時覺)의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의 한 부분에 소를 끄는 사람들을 그려 넣었는데, 여기에서 풍속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기록화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풍속화는 민중의 노동풍습 뿐 아니라 각 계층의 생활상을 직접 그림에 담은 윤두서, 김두량, 조영석과 같은 풍속화가에 의해 발전한다. 뒤를 이어 단원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에 의해 풍속화는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김상희, 1998; 이정규, 1999; 이태호, 1996). 그러나 그림의 회화적 수준을 높이고 풍속화의 전형을 완성한 이들의 활약을 끝으로 풍속화는 쇠퇴한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에 이르러 풍속화는 현실감, 회화성이 떨어지고 형식화, 도식화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중, 후반의 풍속화는 이미 회화성, 장식성을 잃고 기록적인 성격만을 유지하였다. 다만 주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민의

1)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풍속화의 발생 배경에 대해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이념이었던 유교의 민본주의를 주장하기도(홍선균, 1985) 한다.

생활, 풍습 등을 택하였다. 이는 당시 문호의 개방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풍습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그림으로 담아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조선의 풍습이 그려진 김준근의 「기산풍속도」²⁾이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생활풍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풍속화의 경우, 전통사회에서 아동의 생활과 아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사회의 아동관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산물로 세계관, 인간관과 같은 가치관에 기초하여 성립되며, 그림은 그려진 시대의 의식, 가치관을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산물인 그림의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생활과 아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풍속화에 관한 연구는 미술사 측면에서(맹인재, 1975; 유봉학, 1998; 이양우, 1994; 정소연, 1998), 혹은 미술의 기법이나 묘사 방법에 관한 연구(김상희, 1998; 박선영, 1998; 박영숙, 1997; 유홍준, 1992; 이정규, 1999; 이태호, 1996)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때로는 이를 통한 당시의 풍속을 분석한 경우도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으며(김용석, 1998; 신동훈, 1996; 신혜원, 1998)³⁾ 아동에 관심을 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 아동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림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에서 아동을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위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 모습을 통해 볼 때 당시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가?

2) 「기산풍속도」는 김준근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현재 독일의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확실한 제작연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볼 때 19세기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79가지 민속을 그림에 담아 기록한 풍속화첩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 모습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사실주의적 표현의 새로운 화풍이 나타났던 17세기에서 19세기에 제작된 풍속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시기의 풍속화 중, 아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림 53점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연령에 의해 구별하지 않고 결혼 여부에 의해 구분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는 결혼 한 남녀가 성인으로 인정되었고 그 상징으로 상투나 쪽을 지었다(류안진, 1990; 류점숙, 1994; 백혜리, 1997)는 선

3) 이들 연구는 모두 여속(女俗)과 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행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그림에서 상투나 쪽을 짓지 않고 더벅머리나 머리를 땀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을 아동으로 보았다⁴⁾. 그림에서는 아동의 구체적인 연령을 명확히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지 의복과 머리 모양의 특성을 통해 성인이 아닌 아동을 구별할 수 있었다.

2. 연구 절차 및 연구 대상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53점의 그림들은 풍속화에 묘사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즉, 아동이 주인공으로 그려진 풍속화(11점), 아동이 한 가정의 일원으로 성인과 함께 그려진 풍속화(31점), 그리고 기록화의 한 부분에서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풍속화(11점)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아동이 주인공으로 그려진 경우는 11점으로 윤덕희의 「공기놀이」, 김홍도의 「서당」, 「목동귀가」, 「기우부신」, 「고누」, 「선우도」, 「돌잔치」, 조영석의 「마굿간의 마동」, 작가미상의 「서당」, 김두량의 「목동오수도」, 김

준근의 「어린이 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가정의 일원으로 성인과 함께 아동이 등장한 그림 31점은 신한평의 「텃밭매는 두 아낙」, 김득신의 「자리짜기」, 「수하일가」, 김홍도의 「자리짜기」, 김홍도의 「새참」, 「대장간」, 「길쌈」, 「목화밭」, 「어촌귀가」, 「노중상봉」, 「행상」, 「투호」, 「빨래터」, 작가미상의 「회흔례도」 ①, 「회흔례도」 ②, 조영석의 「새참」, 「작두질」, 「바느질」, 신한평의 「젓먹이는 여인」, 윤덕희의 「여인풍속」, 김득신의 「성하적구」, 「대장간」, 「점심」, 김준근의 「줄다리기」, 「그네뛰기」, 「단오추천」, 「널뛰기」, 「투호」, 「쌍륙」, 작가미상의 「새참」, 작가미상의 「전가낙사」 등이 있다.

또한 기록화에 아동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림은 11점으로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평양감사선유도」, 「기노세련계도」, 「안릉신영도」, 「수원능행도」, 이한철의 「모내기」, 작가미상의 「달맞이」, 「보리타작」, 유숙의 「대패도」, 김홍도의 「씨름」, 김두량, 김덕하의 「사계도권」 등이 있다.

Ⅲ. 연구결과

1. 조선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 생활 모습

풍속화에 표현된 아동의 생활 모습을 분석해 본 결과, 아동과 가족 생활, 놀이 생활, 학업 생활, 노동 생활 등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밝히기 위해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과 그를 통해 본 아동인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물론, 조선 전기에는 가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20세 정도가 되면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투나 쪽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졌다고 한다.

1) 가족 생활

풍속화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 생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연령이 어릴 경우,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긴밀하였다. 풍속화에서는 대부분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먼저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신한평의 「젓먹이는 여인」과 「텃밭 매는 두 아낙」, 김득신의 「점심」⁵⁾ 김홍도의 「새참」⁶⁾, 작자미상의 「새참」의 경우, 어머니가 아기에 젓을 먹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아기의 성별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젓먹이의 경우 수유자로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홍도의 「어촌귀가」, 「목화밭」, 「행상」 등에서는 일하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있는 아동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김홍도의 「빨래터」, 김득신의 「수하일가」, 윤덕희의 「여인풍속」에서도 아랫도리를 벗긴 어린 남자아이⁷⁾가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그림에 등장한 경우, 어머니가 함께 그려짐을 통해 볼 때, 어린 시기 아동은 주로 어머니가 보호하고 양육하였다는 사

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좀더 성장한 경우⁸⁾, 남자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표현된 아동의 모습에서는 여아를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평양감사선유도」, 「부벽루연회도」⁹⁾ 등에서 보면 구경꾼으로 그려진 성인 남자와 함께 서 있거나 등에 업혀있는 아동은 모두 남아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동이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였을 경우,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아의 경우, 할아버지와도 긴밀한 관계도 엿볼 수 있는데, 김득신의 「성하직구」나 김홍도의 평생도 중 「돌 잔치」 등의 그림이 그것이다. 「성하직구」의 경우, 농가 삼대가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쪼신을 삼고 있는 장년의 아동의 듬직한 모습이 엿보이고, 담배 대를 물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느긋함, 할아버지의 등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손자의 붙임성 등이 삼대 가족을 끈끈하게 맺어주고 있다(김원룡, 안휘준, 1994). 김홍도가 그린 「평생도」 중, 「돌 잔치」를 보면 잔치 상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조부, 부, 모를 그리고 있는데, 이 중 집안의 가장 어른인 조부는 아동의 뒤, 방안에서 행사의 전개를 바라보고 있고 아동의 양옆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유모와 손님이 둘러앉아서 돌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러한 가족의 배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서

5)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목이 책마다 다른데, 일부에서는 “새참”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장자인 호암미술관의 제목인 “점심”을 사용하였다.

6) 새참의 제목이 붙은 그림은 3편이 있다. 하나는 조영석의 그림이며 다른 하나는 김홍도의 그림이고, 마지막의 것은 작자미상의 그림이다.

7) 그림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으로는 구체적인 연령이나 성별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남아의 경우, 아랫도리를 벗은 것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남자는 아래를 차게 키우기 위해 아랫도리를 벗겨 키웠던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8) 그림을 통해 볼 때 대략 8-9세 경으로 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에서 그려진 대로 아버지와 손을 잡고 외부출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수유가 끝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안진(1990)은 “아동의 연령이 8, 9세에 이르면 서당에 다니며 학문을 연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9) 이 그림은 평양감사 향연도라고도 불리운다.

속에서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돌잔치에 조부는 직접 행사를 주관하지는 않기에 방안이라는 공간에서 머물지만, 아동의 돌이라는 중요한 통과의례를 지켜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돌잔치라는 행사를 통해 양반 집에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집안의 계승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과시하며 신분의 세대 세습적 위엄을 나타내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한 작가미상의 「전가낙사(田家樂事)」에서도 농민들의 타작하는 것을 감독하는 아버지 옆에 어린 아들을 앉히고 함께 밥상을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아들을 한 집안의 계승자로 존중하였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화에서도 남아들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를 구경나온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 김홍도의 「수원능행도」, 「안능신영도」, 「평양감사선유도」, 「평양감사향연도」 등의 기록화에 그려진 구경꾼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사회생활에 성장한 남아를 동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아동이 외부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다음에는 남아와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아동이 여아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강조되었다. 먼저 풍속도에서 여아의 모습은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자미상의 경직도 중 「달맞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여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담 너머로 달을 구경하고 있다. 또한 김준근의 「그네뛰기」, 「단

오추천」, 「널뛰기」 등과 같은 여성 놀이나, 조영석의 「바느질」과 같은 집안 일에 관한 그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노세련계도」나 「평양감사선유도」에 그려진 구경꾼 속에는 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¹⁰⁾ 그러므로 여아는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에 머무르면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풍속화를 통해 볼 때 조선 후기의 아동 생활에서 가족관계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의해 달랐다. 즉, 아동의 연령이 어릴 경우는 성별에 관계없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가 긴밀하였다. 하지만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특성은 달라졌다. 즉, 남아인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반면, 여아는 연령과 상관없이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겠다.

2) 아동의 놀이

풍속화에는 아동의 놀이가 많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공기놀이, 바람개비 돌리기, 제기차기, 병정놀이, 엽전 던지기, 고누, 널뛰기, 그네타기, 줄다리기, 투호, 태권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놀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19세기말 경에 그려진 김준근의 기산 풍속도첩이다. 기산 풍속도첩에는 총 79점의 우리 나라 풍속을 주제로 한 그림을 담고 있는데 이들 중, 민속놀이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 17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아동의 놀이 중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즐긴 놀이와 성인의 놀이를 관찰하고 성인과 함께 하는 놀이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들이 즐겼던 놀이 중 먼저 공기놀이란

10) 수원능행도와 같은 기록화에서는 구경꾼 중에서 여성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여성과 함께 있는 아동의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연령인 경우이고 좀 성숙한 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헌종 때,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심우성, 1996) 전국 여러 곳에서 공기의 명칭과 노는 방법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덕희의 「공기놀이」에서는 공기를 하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남아로 그려져 있어, 당시 사회에서 남아도 공기놀이를 즐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바람개비란 팔랑개비라고도 하며, 이를 돌리는 것은 정월 보름에 행해지던 오래된 풍속 중 하나이다. 즉, 수수깡으로 만든 벼, 보리, 수수, 조와 같은 곡식 이삭 등을 매단 장대의 위쪽에 바람개비를 달아 바람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축원하였다고 한다(심우성, 1996). 바람개비 놀이는 윤덕희의 「공기놀이」, 김홍도의 「길쌈」 등에서 나타나는데, 윤덕희의 그림에서는 공기놀이하는 두 아동의 뒤쪽에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서 있는 또 다른 남아의 모습이 있고, 김홍도의 「길쌈」에서는 길쌈하는 어머니 뒤쪽에 동생을 등에 업은 할머니와 길쌈을 구경하고 있는 아동이 손에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죽마 타기란 대나무나 옥수수 대, 수수대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한 손에 쥐기에 알맞은 것을 끌라, 머리에 말머리를 만들어 붙인 대말(竹馬)을 타고 말을 타는 모습을 흉내내는 놀이로 보편적으로 많이 행하던 놀이이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심우성, 1996; 이재선, 1964). 풍속화에서는 김준근의 기산풍속도 중 「어린이 놀이」에서 죽마 타기가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죽마를 타고 있는 아동이 아

랫도리를 벗었다는 점이다. 이는 죽마를 타고 놀았던 아동은 남아임을 나타낸다.

고누는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간단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널리 이루어지던 놀이이다. 고누를 즐기는 아동의 모습은 김홍도의 「고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나무 지게를 세워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고누를 즐기는 아동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밖에도 기산풍속도에는 병정놀이, 엽전던지기 등의 놀이를 담고 있다. 이중, 엽전던지기란 말 그대로 엽전을 던져서 상대의 돈을 따는 어린이의 놀이로 한자어로는 척전(동국세시기), 타번, 투전이라고도 한다(심우성, 1996).

이러한 아동들의 놀이 이외에도 성인들의 세시풍속을 관찰하거나 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을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널뛰기는 우리 나라 여성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의 하나로 음력 정초나 단오, 추석과 같은 큰 명절에 행해지던 놀이이다. 주로 젊은 여자들이 즐기는 가장 활동적인 놀이로 『경도잡지』 등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에서도 성인 여자들이 널을 뛰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이를 등에 업고 널 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어머니와 함께 널뛰기를 구경하고 있는 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네뛰기」, 「단오추천」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네는 오월 단오에 하는 씨름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표적 민속놀이로 고려 중엽 이후에 이미 민간에서 널리 행했던 민속놀이이다(홍석모, 1989). 『열양세시기』에 의하면 “어린 남녀(男女年少者)가 모두 즐겼는데… 해마다 단오가 되면 전망 좋은 곳의 큰 버드나무

나 늙은 소나무 등에 그네 줄을 매거나 따로 만든 그네 틀에 그네 줄을 매어 그네를 뛰었다(김매순, 1989)”고 한다. 김준근이 그린 여러 벌의 기산 풍속도 중 두 벌의 그네뛰기 그림에서는 여인들이 그네를 즐기는 것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구경하고 있는 여아들의 모습과 함께 엿을 사먹는 남아들의 모습도 담고 있어서 그네뛰기가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밖에도 투호와 줄다리기 등의 놀이를 찾아볼 수 있다. 투호란 일정한 거리에 병을 놓고 화살을 던져 넣는 것으로 어느 편이 더 많은 화살을 병 속에 넣었느냐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중이나 고관들이 여흥으로 이 놀이를 벌였다고 하며 우리나라 삼국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심우성, 1996). 풍속화 중에서는 김홍도의 「투호」와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에 포함되어 있다. 두 그림 모두 성인 남자들이 투호를 즐기는 것을 남아가 옆에 서서 구경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성인 남자들이 모두 두루마기를 입고 갓 혹은 망건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반계층의 남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준근의 「줄다리기」의 경우, 갓을 쓰거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민들이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에서는 성인들이 직접 줄다리를 하는 것을 아동이 뒤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홍도의 「씨름」이나 유숙의 「대패도」 등에서는 성 밖 마당에서 벌어진 씨름과 택견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의 구경꾼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여기에는 또한 술이나 엿을 파는 장사꾼의 모습이나 동생을 데리고 구경나온 아동의 모습, 아버지의 손을 잡

고 구경나온 아동들의 모습이 보인다.

달맞이는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그해의 농사를 미리 점치는 풍속을 말한다(심우성, 1996). 정월 대보름에 달이 솟아나는 것을 남보다 먼저 보는 것이 좋다 하여 앞다투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달을 보기도 한다. 동쪽 하늘에서 달이 솟아오를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풍습이다. 달맞이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은 작자미상의 경직도이다. 「달구경」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는 성인들과 남녀노소 모두 함께 달구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 여아의 경우는 담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달구경을 하고 있으나, 남아의 경우는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함께 담 밖에서 달맞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외부출입을 금했던 풍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서민의 삶과 생활을 소재로 한 풍속화에서 아동이 놀이하듯 하는 모습을 소재로 한 그림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아동의 놀이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다양한 아동의 놀이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 학업 생활

풍속화에서 아동의 학업생활은 중요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을 주제로 그린 그림과 가정에서 아동이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서당을 소재로 삼은 경우, 김홍도의 「서당」, 작자미상의 「서당」 그림을 들 수 있다. 그림에 의하면 서당에는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갓을 쓴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의 남아들이 학문을 연마하면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아이들의 다양하고 정겨운 표정과 서당의 해학적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아동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당 뿐 아니라 가정에서 아동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림에 담은 경우가 있는데, 김홍도의 「자리 짜기」와 김득신의 「자리 짜기」가 그것이다. 이 두 그림은 제목뿐만 아니라 그림의 구성 역시 유사하다.¹¹⁾ 그림에서는 어머니는 고치에서 실을 잣고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동은 글을 읽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더벅머리 아들의 입이 크게 벌어져 있어 목청을 높여 책을 읽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막대기로 책을 짚어가며 열심히 글을 읽고 있다. 특히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아동이 바지를 입고있지 않아 나이가 어린 남아로 판단되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글읽기 공부를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원래 본 그림의 주제가 자리 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글읽기를 포함하여 표현한 것은 서민의 가정에서도 아동의 공부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부를 중시하는 경향은 작자미상의 경직도(耕織圖) 중 「보리 타작과 모내기」에서도 확인된다. 이 그림에 의하면 어른들은 보리 타작과 모내기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아동들이 훈장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가정이나 서당에서 아동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성인의 소망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4) 노동 생활

서민 계층의 아동들은 가사 노동 뿐만 아니라 생산 노동에도 참여하였다. 아동이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그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아동이 가사노동을 돕는 것으로 새참 나르기, 물길기, 밥을 푸거나 상차리기, 나무하기, 소 돌보기 등의 일이었다. 김두량 등의 「사계권도」과 이한철의 「모내기」 등에서 보면, 어머니는 새참을 머리에 이고 남자아이는 앞 혹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새참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 바느질과 같은 집안 일을 도와야 했는데, 조영석의 「바느질」에서 보면 여아가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다. 또한 남아라고 할지라도 집안일, 특히 성인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김준근의 「쌍륙」에서 보면 남자 아동이 쌍륙을 놓고 있는 성인들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가사 노동 이외에도 아동은 대장간 일, 말을 돌보는 일, 생산노동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영석의 「마굿간의 馬童」, 김두량의 「목동오수도」 등에서 보면, 마굿간에서 말을 돌보다가 힘없이 앉아있는 아동의 모습이나 소를 돌보다가 곤히 낮잠에 빠져 든 아동의 모습을 통해 노동에 지친 아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김홍도의 「목동귀가(牧童歸家)」, 「병진년화첩(丙辰年畫帖) 선우도」, 「기우부신(騎牛負薪)」과 같은 그림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동과 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일을 한 후 소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아동의 모습과 나무를 지게에 가득 담아 어깨에 맨 아이가 소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대장간」과 김득신의 「대장간」¹²⁾에서는 화면의 중심에 풀무가

11) 이 두 그림이 구성과 주제면에서 유사한 이유에 대하여 이태호(1996)는 김득신이 김홍도의 그림을 탐구하여 그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김홍도보다 현장감 나는 생활풍속도를 살려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있고, 젊은 아이가 열심히 바람을 일구고 있는 장면이나 김득신의 「작두질」에서 아동이 작두질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보이는데, 이는 서민의 생산 노동에 아동이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아동의 노동은 평민 이하 계층의 일이었다. 아동의 노동에 대한 계층간의 차이는 김홍도의 「평양감사선유도」에서 나타난다. 「평양감사선유도」에서는 배에 탄 아동의 행동이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배를 타고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아동의 모습과, 다른 하나는 전복을 차려입고 평양감사 옆에 편안히 서 있는 아동의 모습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아동 모습의 대조는 아동의 노동이 신분 계층과 관련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아동에 대한 인식

풍속화를 통해 볼 때 당시 아동의 생활에서 남아는 아버지, 여아는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공부와 놀이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평민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동생활의 특성을 통해 조선 후기 아동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은 생활 속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통해 성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풍속화의 여러 장면에서 아동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각종 기념화, 기록화에서 보면 구경꾼, 혹은 그림의 구성에 아동을 포함하여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을 구경꾼으로 혹은 저자거리 한구석에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온 아동, 특히 남아의 모습을 전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임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아동이 사회 생활에 참여하였고,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한 가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함에 있어 남녀의 차이이다. 대부분의 풍속화에서는 마을의 큰 행사나 구경에 직접 참여하는 남아를 그림에 담고 있는 반면, 여아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여아의 경우, 가정내의 대소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나 마을 행사를 구경할 때에도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남아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여아와는 구별되어 바깥출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함은 아동을 성인과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주의라고 하는 풍속화의 화풍에 의해, 그리고 실용성, 실증적인 면을 강조하는 실학의 영향으로 사회생활의 일부에 참여하는 아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림에 담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동은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시기인 1907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인 그리피스(G. P. Griffith)의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는,

12) 이 그림 역시 김득신과 김홍도가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연구에 의하면 김득신이 김홍도를 배우고자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인간이 어떤 시민적인 신분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미혼인 사람은 누구나 어린이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철없는 짓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받는다. 그는 철없이 뛰어 놀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주위사람들은 그가 깊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25세나 30세가 되었을지라도 장가를 들지 않았으면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발언할 수 없으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설사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결혼은 해방이다. 설령 12세나 13세에 장가를 갔을지라도 일단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 새댁은 부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신랑은 어른들 틈에 끼어 발언하고 말을 쓸 권리를 갖는다(p. 324).

라고 하여 그때까지도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 특성, 실용성의 결과라 할지라도 사회의 주변인인 아동에게 주인공인 성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아동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아동은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풍속화에는 한 가정의 모습과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 그 그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가정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동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새참」, 「점심」, 「자리 짜기」, 「수하일가」 등에서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며 기본 단위의 가정의 영속을 위해 자식의 생산이 매우 중시되었음(백혜리, 1997)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가정에서 아동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 받은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가정의 영속을 위해서이다. 당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이 가정은 한 개인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줌으로써 영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은 ‘집’이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후사(後嗣)라는 개념으로써 집안의 대를 잇고 집안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다. 사(嗣)는 갑골문자 상으로 “만아들을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책봉(冊封)한다”¹³⁾는 의미로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의 개별적 단위인 가정의 대를 잇는 일에 국가의 왕위계승이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란 부모와 대를 이을 자식인 남아로 구성되어야 완전하며, 따라서 그림에서도 한 가정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으로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은 한 가정의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평민 이하 계층의 아동에게 적용되었다. 당시 사회는 가내 노동력에 기초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즉, 자식이 많다는 사실은 노동력이 많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그 집안의 경제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노동력의 증강을 위하여 다산과 다남의 가치가 증대되었음(손인수, 1978)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새참이나 점심을 운반하는 모습(「점심」, 「사계권도」), 말을 돌보는 모습(「마굿간의 마동」), 소를 몰고, 혹은 나뭇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의 모습(「목동 귀가」, 「선우도」, 「밥 푸고 상 차리기」, 「회혼례도」 ①, ②, 「바느질」)을 통해 볼

13) 이낙의(1994). 한자정해. 이기봉(역). 서울 : 비봉출판사. p.391.

때, 아동이 가사 노동에서 한 몫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대장간」)이나 작두질과 같은 생산 노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아동도 성인의 노동을 조력하거나 혹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아동은 한 가족의 사랑, 보호의 대상이었다. 이는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과 표정 등을 보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젓먹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그림에서 젓을 먹는 아동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자상하고 행복한 표정이나(「새참」, 「점심」), 손자를 데리고 평양감사의 뱃놀이 혹은 향연과 같은 구경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평양감사 향연도」, 「평양감사 선유도」), 회갑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회갑 상 뒤에

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회혼례도」 ①, ②)이나 손자의 돌상에서 즐거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돌 잔치」) 등은 긴밀한 가족관계에서의 아동 존재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아동은 성별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었다. 즉,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남성을 보조하고 집안을 돌보는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조혜정, 1982). 따라서 가족관계나 아동의 놀이는 물론이고 아동이 참여하는 노동의 종류도 성별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에서 여아와 남아에 대한 인식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 중심 인물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공부가 강조되고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허용되었던 반면, 여아는 남자를 봉양하고 집안을 돌보게 될 보조자로 인식되어 집안에서만 머물도록 허락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아동의 존재를 밝히기 위하여 풍속화를 통해 아동의 생활과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당시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속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아동의 생활과 특성은, 가족관계, 놀이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동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긴밀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할수록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반면, 여아는 어

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소학(주희, 1997)에서 보면, 남자는 10세가 되면 사랑에 나아가 거기서 기거하면서 글쓰기, 육예 등을 배우며, 여아는 학문적 소양보다는 품성 교육, 가사기술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풍속화에서도 남자는 아버지와 함께 묘사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며, 여아는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신분의 세대세습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은 남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주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놀이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아동의 놀이에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풍속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아의 놀이에는, 죽마(竹馬) 타기, 병정놀이, 엽전놀이,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고, 남아성인들과 함께 하는 줄다리기, 투호, 씨름, 택견 등이 있었다. 반면 여아의 놀이는 그네뛰기, 널뛰기 등으로 어머니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놀이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류안진(1990)은 전통 아동의 놀이는 전통사회의 생활문화를 학습, 연습시킨 교육방법이었다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놀이 특징 중 성 차에 적응시킨 남녀 아동의 놀이 분화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성 차에 따른 전통적 생활 양식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이 공부를 하는 모습에서는, 서당의 형식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비 형식적 교육의 형태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공부는 양반 자체뿐만 아니라 서인(庶人)이나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림에 나타난 아이들은 남아들로서 전통적인 사상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가 7세 경까지는 비 형식적인 교육 기관이고 8세부터는 형식적인 교육기로 이행한다(류점숙, 1994)는 사실이 잘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아동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모습은, 김홍도의 「자리짜기」 경직도(耕織圖) 중 「보리 타작과 모내기」 그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부를 통하여 성인(聖人)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엿보게 해 준다.

가사 노동에의 참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났는데, 특히 서민 계층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동은 부모님의 가사 일을 도왔다. 특히 남자아이는 김홍도의 「새참 운반」과 이한철의 「모내기」, 조영석의 「새참」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를 도와 새참을 나르고, 함께 밥을 먹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어릴수록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보호 및 양육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가사 일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서민계층에서 어머니가 가사 일과 양육은 전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 현장의 참여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차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될 수 있는데, 김홍도의 「목동귀가(牧童歸家)」, 「병진년화첩(丙辰年畫帖)」, 「기우부신(騎牛負薪)」, 김두량의 「목동오수도」와 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를 몰거나, 농사일을 돕고, 나무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노동의 현장은 반드시 논이나 밭이 아닐 수도 있다.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 이후의 수공업 및 상업의 발달에 영향을(유봉학, 1998) 받아 생활의 형태가 변화되어가고 그래서 아동의 노동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의 일하는 모습은 기록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홍도의 「평양감사선유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경 나온 남자아이들도 있지만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남자아이들의 모습도 표현되고 있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김준근이 그린 조영석의 사제첩(麴臍帖) 중 「바느질」 그림에서처럼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아동에 대한 인식으로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식, 아동은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 성별에 따른 존재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아동은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풍속화에서 아동은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기념화나 기록화에서 보면 구경꾼, 혹은 그림의 구성원으로 아동이 등장한다. 이는 아동을 구경꾼이 되는, 혹은 시장의 한 구석에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함께 온 아동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화풍이 사실주의임을 고려한다면,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사회생활의 일부에 참여하는 아동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는 풍속화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체 사회 집단 속에 아동이 포함되어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아동은 바로 남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은 당시 사회에서 아동을 존중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풍속화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과 아동에 대한 인식은 당시 그림의 사실주의 화풍과 그리고 경험적, 실증적 요소를 중시하던 실학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동을 그림에 포함하고 그들의 생활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을 그림에서 성인과 함께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인식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은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새참」, 「자리짜기」, 「수하일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족이라는 단위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동은 한 가족의 사랑, 보호의 대상이

었다. 이는 찢먹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그림에서 찢 먹는 아동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자상하고 행복한 표정, 손자를 업고 평양감사의 뱃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손자의 돌상에서 즐거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긴밀한 가족 관계에서 아동의 존재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의 존재는 노동력 제공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남아 출산의 가치가 여아 출산 보다 더 강조되었다(손인수, 1978)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남아가 가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존재였음을 그림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은 성별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었다. 즉, 남아를 더욱 가치 있게 인식하였다. 거의 모든 풍속화에서는 남아를 그림에 등장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여아는 가사를 돌보거나 집안에 머무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한 집안의 구성원일 뿐인 여아에 비해 남아는 한 가정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더 존중됨을 의미한다. 남아는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중심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여아는 단지 남자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주변인으로서 인식되었을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풍속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아동은 가족과 노동, 그리고 놀이와 학업이라는 생활 범주 속에서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구성원, 가족의 중요한 존재로서 여아 보다 남아가 더 가치 있다고 인식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풍속화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존재와 인식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0). 한국민속대관 4.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국립중앙박물관(1992). 단원 김홍도.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 김매순(1989).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최대림(역), 서울 : 홍신문화사.(원본발간일, 1819).
- 김상희(1998). 18, 19세기 풍속화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철(1988). 조선조 후기의 실학사상과 풍속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숙(1985). 조선조 후기 풍속화의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석(1998). 조선후기 여속화 변화 탐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원룡, 안휘준(1994). 신판 한국미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류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류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 중문출판사.
- 맹인재(1975). 풍속화고. 간송문화 10. 27-39.
- 박선영(1998). 조선시대 화원화풍의 풍속화와 민화풍의 풍속화의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1997).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 관한 연구 : 김홍도와 신윤복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숙(1991).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 : 예경산업사.
- 박용숙(1999). 한국미술사 이야기. 서울 : 예경산업사.
-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 학위 청구논문.
-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문음사.
- 신동훈(1996).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원(1998).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우성(1996). 우리 나라 민속놀이. 서울 : 동문사.
- 안준휘(1985). 한국풍속화의 발달. 중앙일보사(편). 풍속화. 한국의 미 19. 서울 : 중앙일보사. 168-181.
- 안휘준(1988).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 문예출판사.
- 안휘준(1993). 한국회화사. 서울 : 일지사.
- 안휘준(1990).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 문예출판사.
- 유봉학(1998). 조선 후기 풍속화 변천의 사상적 검토. 간송문화. 36. 43-62.
- 유홍준(1992). 단원 김홍도 연구노트 : 단원 연보와 작가상 규명을 위한 열가지 변증. 단원 김홍도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109-122.
- 이낙의(1994). 한자정해. 이기봉(역), 서울 : 비봉출판사.
- 이양우(1994). 조선후기 풍속화와 사회와의 상관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선(1997). 조선의 민속놀이, 흥기원(영인), 서울 : 민속원.(원본발간일, 1964).
- 이정규(1999). 단원과 혜원 풍속화의 선적 표현에 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호(1995). 풍속화(하나, 둘). 서울 : 대원사.
- 이태호(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 학고재.
- 정소연(1998). 실학사상이 풍속화에 미친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태진(1999). 조선시대 풍속화와 사상적 배경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인규, 김순영(1993). 조선미술사. 서울 : 학민사.
- 조은정(1996).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골계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혜정(1982).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40.

조홍윤, 게르노트 프루너(1984). 기산풍속도첩. 서울 : 범양사 출판부.

주 회(1997). 소학. 이기석(역해). 서울 : 명문당.(원본발간일, 1187).

중앙일보사(1985). 단원 김홍도, 한국의 미 21. 서울 : 중앙일보사.

진준현(1999). 단원 김홍도 연구. 서울 : 일지사.

최순우(1981). 한국회화의 흐름. 한국회화 1. 서울 :

도산문화사.

허영환(1999). 동양미의 탐구. 서울 : 학고재.

호암미술관(1999).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서울 : 호암미술관.

홍석모(1989). 동국세시기. 최대림(역), 서울 : 홍신문화사. (원본 출간연대미상).

홍선균(1985). 조선시대 풍속화 발달의 이념적 배경. 중앙일보사(편). 풍속화. 한국의 미 19. 서울 : 중앙일보사. 182-187.

W.E. 그리피스(1999).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역주). 서울 : 집문당.(원본발간일, 1907).